



보도일시	2022. 3. 3. (목)		
단체명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청년·대학생 본부	위원장	이주원, 최지원
담당자	최지원 청년부위원장 010-2403-1531	E-mail	change.kedu@gmail.com

교육대전환을 함께 이룰 2030 청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일시: 2022년 3월 2일 (수) 오후 4시 30분

장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2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교육대전환을 함께 이룰 2030 청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 진행됐다고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청년·대학생본부가 밝혔다.
- 본 지지선언은 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청년·대학생본부가 주관했으며, 지지선언 서명에는 123명의 청년들이 동참했다. 대한민국의 초등, 중등, 교육, 대학 교육을 이수한 피교육자 당사자로서 이재명 후보와 후보의 교육대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서는 민주당이 역대 대선 최초로 운영하는 교육유세단 유세 활동 공유와 이재명 후보의 12대 교육공약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교육 사회가 당면한 대학서열화 및 사학비리 등의 여러 과제에 대해 '문제 해결형' 정책으로 타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대전환을 함께 이룰 2030 청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의 참여자 일동은 “사회 내 여러 불평등 문제는 교육의 불평등에서 출발하고,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교육대전환’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과 함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고, 사회적 격차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1) 지지선언문

교육대전환을 함께 이룰 2030청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저희는 교육대전환을 희망하는 2030청년입니다. 오늘 저희는 교육대전환을 함께 이룰 2030청년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된 공약 분야를 살펴보면 노동, 주거, 기후, 젠더 등의 이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국민의 삶과 가장 근접한 의제이기에 정치권의 끊임없는 정책 연구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상황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 의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표심을 잃을까 혹은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정당과 후보들의 관심 밖이거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 주거, 기후, 젠더 분야의 불평등은 우리가 극복하고 꼭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불평등의 원인을 단순히 그 문제에서만 찾고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돌아보고, 더 이상 격차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작에는 '교육'이 크게 자리하고 있기에 '교육대전환'은 더욱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과 청년은 같은 교육과정, 같은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시장과 사회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이며,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기대하지만, 긴 세월 동안 머물러 있는 교육 제도와 과열된 경쟁 체제로는 이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꿈 많은 청소년과 청년의 소망을 이뤄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교육대전환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은 뿌리 깊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피교육자 당사자들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후보가 지난 1월 초와 2월 말에 발표한 돌봄 교육, 초중고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교육 공약에 '국가 책임 확대'라는 기조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맞는 정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제도 개편 및 비진학 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돌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 사회가 당면한 세밀한 과제에 최적화된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일제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제고사로 진정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의 꿈에 다다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제고사의 획일화된 수학, 영어 시험은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일제고사를 실시한다면 교육은 또다시 '점수 1등을 위한 경쟁 학습'의 교육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식 확인이 필요하다면 다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제고사로 학생들은 꿈을 좇기보다 경쟁을 쫓고 격차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열화는 사회에

나와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충분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로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 본인의 재능 열떨결에 양보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창의적 인재 발굴, 다양한 인재 양성과는 너무나도 먼 공약입니다.

이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교육대 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다음 세대가 더 이상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고, 사회적 격차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대전환을 지지하는 2030청년 일동

(붙임2) 웹자보



(붙임3) 현장사진

